

한문고전 번역은 어디까지 와 있나

원문 이해 미숙, 한자어 성립배경 무지로 오역 잦아

전고典敍확인, 시문의 갈래별 특성과 서술형식 이해, 직역·의역 병행해야

글 심경호(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I 이즈음 나는 틈나는 대로 서양고전을 읽고 있다. 대학시절 국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철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서양고전을 원서로 읽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전철도 개통되지 않았던 시절,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안에서 원서를 읽으려고 했던 일이 바로 어제만 같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유능한 연구자들이 정성을 다해 번역한 책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 년 전에는 생각조차 못한 일이다.

내가 전임교원이 됐을 때는 번역작업을 연구성과로 산정해 주지 않았다. 필자는 평소 《논어》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사유를 기초로 한 저술도 중시했지만 기존 학설을 이해하기 위해 번역에 가치를 두어 왔다. 그래서 서양학을 공부하는 학자들과 인문학 진흥 방안을 마련할 때 번역을 연구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각 대학마다 번역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추세다.

II 한문고전에 대한 연구는 '동양적인 것'과 '우리 것'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미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 및 진보주의 진영은 한문 고전을 정리하여 새로운 한학을 태동시켰다. 양백화梁白華는 중국 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1960, 70년대 비판적 지성들은 한문고전 속에서 내재적 발전의 힘을 확인하고 자료들을 역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름의 한문고전학과 중국학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한문고전의 번역은 특히 민족문화추진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속속 간행하였다.

하지만 한문고전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많은 번역서가 나왔지만, 번역의 방법이나 수준과 관련해서 개선할 여지가 적지 않다. 주석을 첨부하지 않거나 원문 이해가 미숙하여 번역이 잘못된 예도 발견된다.

현재까지 독서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현토본懸吐本 《논어》《맹자》와 현대어 번역물 《장자》라고 한다. 그밖에 경부經部의 사서오경, 사부史部의 정사류·고사류·전기류·정서류, 자부子部의 유가류·병가류·법가류·농가류·의가류·예술류·잡가류·술수류·소설가류·도가류·유서류, 집부集部의 고전들이 번역되었다. 하지만 인용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주석이 완전하지 못한 결함이



이 글을 쓴 심경호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하였고, 일본 교토(京都)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중국어학중국문학) 수료, 1989년 1월에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으로 교토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교수,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강화학파의 문학과 사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다산과 춘천》(강원대출판부), 《한문산문의 미학》(고려대 출판부),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일지사), 《한국한시의 이해》(태학사), 《한문산문의 내면풍경》(소명출판), 《김시습평전》(돌베개), 《한학연구입문》(이화문화사)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주역철학사》(예문서원), 《불교와 유교》(예문서원), 《일본한문학사》(소명출판), 《금오신화》(홍익출판사), 《당시읽기》(창작과비평사), 《인간 사마천》(강출판사), 《한자, 백가지 이야기》(황소자리) 등이 있다.

나타났다. 게다가 자료를 스스로 가공하지 않았다거나, 선진적인 연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결함을 지닌 것도 적지 않다. 《장자》의 경우, 감산(懸山)의 《장자내편주》를 저본으로 번역하면서 다른 설과 대조하지 않았다거나, 일본의 전석한문대계본(全釋漢文大系本)을 대본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III

이번 학기 외부 대학원 강의에서 김만중의 《서포만필》을 다루었다. 김만중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저자이

자, 국문시가가 지닌 민족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역설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사유체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서포만필》은 올바른 번역물이 없다. 1987년에 어느 큰 출판사에서 역주본이 나왔지만 인명, 지명의 주석과 전고의 확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김만중은 당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던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였던 문화비평가다. 그는 중국 학설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설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렇거늘 김만중이 인용한 '포저 조상(趙相)을, 우리 학자 조익(趙翼)인 줄 모르고 후한의 조기(趙岐)라고 주석하다니, 정말 심하다. 그러한 류의 오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늘, 그 역주를 논문작성에 인용하는 연구자는 대체 어느 나라 학자들이란 말인가.

내 자신도 떳떳하지는 못하다. 과거에 역주한 것들이 부끄럽기만 하다. 한문원전을 이해하려면 한자의 표면적인 뜻을 넘어서서 그 한자나 한자어를 성립시킨 배경을 알아야 한다. 시문에는 전고(典故)라 하여 고전의 시문에 근거하는 표현들을 따오는 경우

가 많으므로, 한자의 본의(本義)만 알아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한문학 작품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면 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그 경우, 원전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문구님의 《매월당 김시습》(문이당, 1992)은 매우 수준이 높은 역사소설이지만, 기존의 오역을 답습하여 그려진 곳이 간혹 눈에 띈다. 소설의 '이 가슴 씻으리니 어디가 그곳인가'라는 장에서 김시습의 〈북명(北銘)〉을 번역한 데서 "...선비의 풍도를 잊지 말라, 염치는 개운하고 흐뭇하더라. 세태의 흐름은 사투한 것... 골짜기 피어오르는 구름에 반하지 말며, 임자 없는 달빛에 아첨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국역매월당》(1977)의 오역을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IV

번역은 저술보다 어렵다. 나는 역주 《원중량집》(10책, 소명출판, 2004)을 집필하면서 한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적이 있다. 시라카와 시즈카의 《한자, 백가지 이야기》(황소자리, 2005)를 역주할 때도 무척 고통스러워 입술이 계속 터졌다.

한문 고전을 연구하거나 읽는 사람들은 그 고전 속에서 미래의 삶에 유용한 중심사상을 찾아내고, 지적 고우성과 보편적 가치관을 지닌 민족 주체를 확립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적' 작업은 주석과 번역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전문 연구자들이 정본을 만들고 주석과 번역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접 과학의 연구자들이나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한문고전을 재해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한문고전을 번역할 때는 ① 전고(典故)의 확인 ② 시문의 갈래별 특성 인식 ③ 시문 서술 형식의 이해 ④ 직역과 의역의 병행 등에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최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동서양고전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심경호